국가안보전략연구원 I 2020.11.17 (화) I 제25호

INSS
Global Focus
Weekly

주간 현안 및 쟁점 (2020.11. 9 ~ 11.15)

미 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 결과 승복 거부로 정권 이양 지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1일 연속 10만 명 상회

중 국 포동 발전은 당 중앙 정책 관철과 실천의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일 본 스가 총리,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
RCEP 참가 15개국 서명, 일본제품 관세 91.5% 철폐

러시아 푸틴 대통령, 5개 부서 장관 교체 등 부분 개각 단행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카라바흐 분쟁 중재로 평화협정 체결

아세안 아세안, 아세안 관련 일련의 정상회의 화상 개최
아세안 10개국,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와 RCEP 서명

유 럽 英,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U, 역외국경 경계와 온라인 극단주의 통제 강화 합의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 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 결과 승복 거부로 정권 이양 지연

▣ 미국 대선 종료 12일째인 15일(현지 시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속한 정권 이양을 요구 (CNN, 11.15)

-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만 '선거는 조작됐다', '가짜뉴스의 눈으로 봤을 때만 바이든이 이긴 것', '내가 이겼다'는 내용을 잇달아 올리면서 대선 불복과 버티기에 돌입
- 14일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에서 열린 '밀리언 마가 마치(Million MAGA March)' 집회에는 극우파 단체들인 오스키퍼스(Oath Keepers), 프라우드보이스(Proud Boys), 스리퍼센터스(Three Percenters) 회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해 조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승리를 주장

▶ 트럼프 선거캠프의 선거 소송을 대리했던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가 더 이상 소송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승복을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1일 연속 10만 명 상회

▣ 15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지난 9일 누적 환자 1,0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6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4일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뒤 11일 연속 10만 명을 상회 (CNN, 11.15)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단에 합류한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이 "앞으로 몇 주 내에 하루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지역 단위 봉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유타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하이오주의 사업체·점포 대상 마스크 의무화 규정 강화, 메릴랜드주의 식당 내 정원 50% 유지, 뉴욕주의 밤 10시 이후 술집 및 식당 영업 제한, 오리건주의 식당 실내영업 중단 등 각주의 코로나 대응규제 강화조치들이 잇따라 발표

▶ 반면, 갤럽의 설문조사에서 보건 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하면 따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월초 67%에서 49%로 떨어지고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설문조사에서 타인과 6피트(약 1.8m) 거리 유지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월의 34%에서 53%로 올라가는 등 정부 당국의 조치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

중 국

포동 발전은 당 중앙 정책 관철과 실천의 결과

▣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포동(浦東) 개발과 개방 3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하여 포동이 당중앙의 정책을 잘 관철하고 실천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 (新華社, 11.12)

- 시진핑 주석은 30주년 축하 연설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 △전국 개혁개방 선도 △핵심 경쟁력의 대폭 증대 △비약적인 생활 수준 향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포동의 30년 개발과 개방을 평가
- 시진핑 주석은 포동 지역의 개발과 개방 30년 성과는 당중앙의 정책 결정을 관철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포동이 보여준 창조적인 성과이며,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증거이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에 가장 생동감 있는 실천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 포동 지역의 개발과 개방은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대외 개방 지속을 보여주는 상징인 바, 향후 중국의 경제, 금융, 무역, 항운, 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제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아세안, 중국, 한국 등 15개국 정상이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동아시아 주요국의 통일 시장 건립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 (新華社, 11.15)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12년 11월 공식 논의가 시작되어 8년 만에 인도를 제외하고 15개국 정상이 최종 협정에 공식 서명
- 15개국 정상은 RCEP 공동선언문에서 RCEP를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

▶ RCEP는 초기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했으나 2019년 인도가 중국과 이견으로 최종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공동선언문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 참여를 재차 강조한 바, 향후 인도 참여 여부가 RCEP 순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인도 참여를 위한 對인도 견인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일 본

스가 총리,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

▣ 스가 총리, 12일 오전 바이든 미국 민주당 차기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 (朝日新聞, 11.13)

- 가토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권과도 미일동맹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의사가 표명되어 매우 의의가 있다"며 환영

- 가토 관방장관은 12일 오후 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안보조약 5조 적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재차 확인 설명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확인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으로 확인하였는바, 당시 부통령을 역임했던 바이든 당선인 또한 이 점을 명언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RCEP 참가 15개국 서명, 일본제품 관세 91.5% 철폐

▣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ASEAN 등 15개국은 15일, 자유무역구상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하고 협정에 서명 (朝日新聞, 11.16)

- RCEP는 2013년부터 교섭 시작, 약 8년에 걸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참가국의 인구와 GDP 합계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나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큰 규모

- 일본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제3위인 한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 이후에는 역내 관세철폐로 수입품이 저렴해지고 수출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투자나 전자상거래 등 공통의 룰이 생겨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

▶ 전 세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운에 체결된 RCEP로 일본 내에서는 자동차 부품 등 일본의 공업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91.5% 철폐하게 되고, 무관세 비율도 대폭 확대되면서 자국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러 시 아

푸틴 대통령, 5개 부서 장관 교체 등 부분 개각 단행

▣ 푸틴 대통령이 7월 1일 개헌으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부총리를 1명 늘리고 5개 부서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 (크렘린, 11. 9)

- 신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내무·외무·법무·국방·비상사태부 제외) 부총리와 장관은 총리가 하원에 후보를 제안하여 인준을 득한 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

- 이에 따라, 이날 미슈스틴 총리는 새로운 부총리 1명과 에너지부, 교통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후보자 명부를 하원에 제출하고 인준을 요청

▶ 이번 개각은 7월 1일 개헌 이후 최초로 이뤄진 연방정부 조직과 구성원 변경 조치이며, 코로나19 위기와 국제적 저유가 상황에서 성과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이 미슈스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분석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카라바흐 분쟁 중재로 평화협정 체결

▣ 러시아가 6주 이상 지속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중재하여 3자 평화협정을 체결 (크렘린, 11.10)

- 이날 푸틴 대통령의 중재로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해당 분쟁 지역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9개 항의 평화협정에 서명

- 이로써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를 제외하고 1992~4년 전쟁으로 아르메니아에 빼앗긴 해당 지역 대부분을 수복

▶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평화협상을 적극 중재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5년간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기로 결정

아 세 안

아세안, 아세안 관련 일련의 정상회의 화상 개최

▣ 아세안이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11월 12일),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4일) 등 일련의 회담 개최 (ASEAN Secretariat, 11.12-14)

- 아울러 아세안은 한국(제21차, 11월 12일), 일본(제23차, 12일), 인도(제17차, 12일), 중국(제23차, 12일), 미국(제8차, 14일), 호주(제2차, 14일), 뉴질랜드(14일)와 각각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13일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및 제12차 일본-메콩 정상회의 개최

- 2011년 EAS에 가입한 미국은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었던 2013년 제외하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국무장관, 2018년에 부통령, 2019년과 올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여 미국의 아세안 경시 논란 자초

▶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 공동 성명서가 일본과 중국이 각각 요구한 대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채택된 가운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상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비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될지 주목

아세안 10개국,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와 RCEP 서명

▣ 아세안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정상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 채택 (ASEAN Secretariat,11.15)

- 15개국의 인구(22억 명, 세계 인구의 약 30%), 국내 총생산(총 26조 2천억 달러, 세계 GDP의 약 30%), 무역 규모(세계 무역의 약 28%)를 고려할 때,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 RCEP 체결국은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RCEP 체결 시 중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2019년에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의 협정 가입을 촉구

▶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역내 경제 주도권을 놓고 RCEP과 CPTPP로 경합하게 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

유 럽

英,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 에너지, AI, 5G, 암호기술 등 핵심 산업에서 외국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투자법안(NSI: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2020)' 마련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11.11)

- 이번 법안은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망 참여, 러시아 가즈프롬의 브리티시 가스 인수 추진, 중국 국영기업의 영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 등으로 안보 불안을 느낀 영국 정부가 중러 등 적대적 외국 기업들로부터 경제 주권 수호가 목적
- 전체 기업 인수뿐만 아니라 일부 자산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수할 때도 영국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기업 인수 합의 후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2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을 대폭 강화

▶ 영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과도한 국가안보 논리가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함

EU, 역외국경 경계와 온라인 극단주의 통제 강화 합의

▣ EU 회원국 내무부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테러 대응을 위해 역외국경 경계와 온라인상의 극단주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 (EU, 11.13)

- 佛 마크롱 대통령,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로 불법 이민의 증가를 들어 26개 회원국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셰겐 협정 개정을 요구
- 온라인상에서 특정 종교 집단이나 인종 및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과 선전 등 테러 의심 콘텐츠 신고 1시간 이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 역시 제안

▶ 이번 역외국경 경계와 온라인 통제 강화 정책은 오히려 다양성을 통한 '하나의 유럽'으로 거듭나려는 유럽공동체의 민주적 통합정책에 모순적일 수 있다는 분석

주 요 일 지
(2020.11. 9 ~ 11.15)

| 미 국 |

· 11. 9 : 미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개발 코로나19 백신 90% 이상 효과' 발표
· 11.11 : 바이든 당선인,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론 클레인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
· 11.12 :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보복 위해 온라인매체 설립 검토' 보도
· 11.13 :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주)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 탄생
· 11.13 : 재무부, 틱톡 매각 시한, 27일로 보름 연장
· 11.15 : 오바마 전 대통령, CBS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결과 승복 촉구

| 중 국 |

· 11. 9 :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바이든 선생이 이미 당선에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선의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이해하고, 축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미국 대선 첫 반응 표출
· 11.10 : 틱톡, 미국 컬럼비아 상소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4일에 서명한 행정명령 중지 소송 제기
· 11.11 : 외교부, 미국과 대만의 소위 '경제대화'는 '대만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손해라고 비판
· 11.12 : 왕이 외교부장,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20주년 기념 대회 참석하여 '파란만장의 20년,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장을 열자(波瀾壯闊二十年, 奮楫破浪創新篇)'는 주제로 연설
· 11.13 :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 미국 대선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한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확정될 것으로 이해한다"는 첫 공식 입장 표명
· 11.14 : 리커창 총리, 베트남이 주최한 제23차 아세안+3(중국, 한국, 일본) 화상 회의 참석
· 11.15 : 홍콩 '대공보(大公報)', 중국 대륙이 대만 독립 주장 인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보도

| 일 본 |

· 11.10 : 스가 총리,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면담하고 한일관계 개선 기회를 한국 측이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11.11 :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 전 위안부 및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 판결은 내년 1월 13일 예정
· 11.11 : 미야기현 오나가와 주민, 동일본대지진(2011년)으로 피해를 입었던 오나가와 원전 2호기에 대한 재가동 동의 수락
· 11.12 : 일본 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1,662명으로 역대 최대치 갱신
· 11.14 :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화상회의로 개최,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중국 측은 대미 비판을 자제

| 러시아 |

· 11. 9 : 푸틴 대통령,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 시리아 내전 수습 방안 논의
· 11.11 : 러시아 연방정부, 아프리카 수단에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한 협정문 초안 공개
· 11.11 : 푸틴 대통령, 새로운 전략핵전력통제소 건설 사업 경과 언급
· 11.12 : 라브로프 외무장관, 바이든 집권 시 미러관계의 긍정적 전환 가능성 부정 평가
· 11.13 :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 2만1천983명 기록
· 11.14 : 푸틴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공동선언 제안

| 아세안 |

· 11.11 : 싱가포르-홍콩, 양국 여행객에 격리조치를 부가하지 않는 '트래블 버블' 체결 발표
· 11.11 : 필리핀, 미국과의 방문군지위협정(VFA) 종료를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
· 11.11-12 :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한 태풍 '밤꼬'로 최소 53명 사망
· 11.12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주로부터 10억 달러 차관 도입 발표
· 11.13 :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11월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민족동맹의 압승 발표
· 11.14 : 태국,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개

| 유 럽 |

· 11. 9 :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잇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이맘(이슬람 교단 지도자) 교육 기구 설립 필요성 역설
· 11.10 :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 NHS에 12월 1일부터 대규모 백신 접종 준비 태세 갖추도록 지시
· 11.10 : EU 집행위, 아마존에 유럽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혐의를 제기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
· 11.10 : 영국, 벨라루스가 영국 외교관 2명을 추방하기로 하자 런던 주재 벨라루스 외교관 2명의 추방으로 맞대응
· 11.11 : 영국, 가파른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로 세계에서 5번째로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누적 사망자 규모 5만 명 상회
· 11.11 :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102주년을 맞아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기념식 거행
· 11.12 : 슬로바키아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45일 추가로 연장 결정